



보건의료노조 “퇴진” 행진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조합원 200여명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한 뒤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파트에 하야 축구 현수막, 마을 단위 촛불시위…계속 타오르는 분노의 민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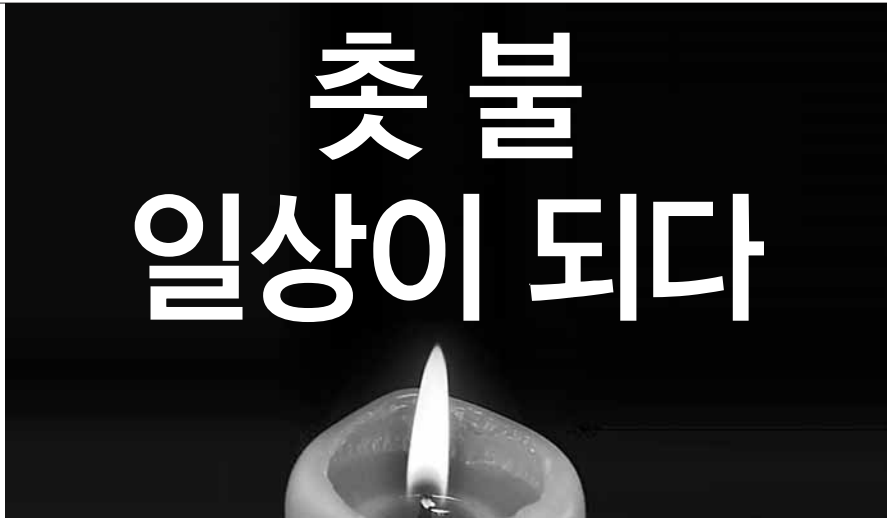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 주민은 이달 초 아파트 창문에 ‘박근혜 하야 축구’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하야하라!”라는 문구와 최순실씨의 얼굴이 담긴 이 현수막은 먼 거리에서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현수막을 내려달라는 전화가 오기도 했지만 이 주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현수막을 걸어두고 ‘박근혜 하야 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위경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 멜버른에서 생활하고 있는 광주 출신의 30대 남성도 현지에서 ‘꼭두각시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하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SNS에 게재했다.

광주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바라는 촛불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과 대학가에는 현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시국 선언문이 내걸리고, 도심 곳곳에도 염원을 담은 포스트잇이 붙고 있다. 광주지역 마을 단위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작은 촛불 집회’ 열리기 시작했다. SNS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기사와 관련 해시태그(Hashtag), 촛불을 형상화한 이미지가 넘쳐나고 있다.

100만명의 인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하야’를 외친 ‘11·12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퇴진이 있을 때까지 촛불을 밝힐 예정이다.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 놓인 ‘시민의 벽’에는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이게 나라냐’ 등의 글귀가 적힌 하얀 색과 녹색 리본이 가득 매달렸다.



대학가 대자보 잇따르고 호주에선 1인 시위도

전남대 1학생회관 벽에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대자보가 잇따라 붙었고, 현수막도 가득 걸렸다. 또 ‘현 시국에 외치는 당신의 한마디!’ 게시판에도 현 정권의 퇴진을 바라는 포스트잇이 가득하다.

마을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매주 월요일 남구 푸른길 공원에서 촛불 모임을 이

어가고 있는 ‘세월호 남구 푸른길 촛불 모임’은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함께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은 퇴진 촉구 퍼포먼스와 함께 현 정권을 향한 자유발언 등으로 촛불 모임을 축제처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9일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정문 광장에서 주민 400여명의 이름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용봉동 주민들도 오

는 18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촛불 모임을 열기로 했다.

정달성(36)씨는 “동네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식사 자리, 술자리, 거리에서 만난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현 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용봉동 촛불 모임을 지속적으로 열기로 했다”며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온 초등학교부터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촛불이 넘실대고 있다. 특히 최근 ‘11·12 촛불항쟁’ 이후 세월호 추모 집회를 위해 만들어진 한 일러스트를 다시 SNS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는 사용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석정현씨가 만든 이 일러스트는 광장문 광장을 환하게 비추는 촛불 행렬과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또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박근혜하야하라’, ‘#부끄러움은왜우리의몫인가’ 등의 해시태그가 SNS상에서 넘쳐나고 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왼쪽부터 ‘11·12 촛불항쟁’ 이후 SNS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추모 집회 일러스트, 이달 초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 걸린 ‘박근혜 하야’ 축구 현수막, 호주 멜버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광주 청년.



‘납품 비리’ 노회용 전 동구청장 구속

전 광산구청 비서실장도

노회용(54) 전 광주 동구청장이 구속됐다. 관공서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진웅)는 16일 납품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청구된 노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청구된 광산구청 전 비서실장 박모(48)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노 전 구청장은 증거인멸 우려로, 박 전 비서실장은 증거인멸 우

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노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 까지 납품 관련 모 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박 전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공서 납품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15일 노 전 구청장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도 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간부급 공무원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강운태 전 광주시장 보석으로 풀려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1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7개월 25일만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강 전 시장의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열어 “형사소송법 95조 ‘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보석금으로 1000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시장은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 지난해 6~11월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알고 지내던 여성 살해 집마당에 암매장

순천경찰, 50대 검거

순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마당에 유기한 50대 남성이 1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손모(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7일 오후부터 9일 오전 사이 순천에서 A(여·5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순천시 서면 자택 마당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11시50분께 손씨의 주거지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30분께 순천시 서면 한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실종됐다.

손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59분께 부산시 사상구 한 근린공원에서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지해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6일 응급 수술을 마친 손씨를 순천으로 압송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17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까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코 박고 인사해라” 고객센터서 상습 갑질 40대 철창형



○수십 차례에 걸쳐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찾아가 무

리한 요구를 하며 특정 여직원을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이 철창형.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2)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하루 2~3차례, 모두 36차례에 걸쳐 광주시 서구 마북동 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박모(여·29)씨 등 2명의 여성 상담원

에게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사적인 질문을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

○김씨는 “내가 오면 코를 박고 인사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직접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시범을 보이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미모의 특정 여성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질문을 던지고 괴롭혀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설명.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경매 수익형 빌딩  감정가 41억6천만, 최저가 41억6천만 서구 광천동 / 일반상업지역 / 대지 223평, 건물 571평	경매 골프장  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	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21억 3천만, 최저가 9억 6천만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 교육 연구 시설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6억 2천만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세차기 / 3기 6구 연립주택 및 다가구주택 부지 감정가 11억 6천만, 최저가 11억 6천만 서구 쌍촌동 / 대지 457평 / 2종일반주거지역 / 8m 도로점 / 주위 다가구주택 혼재 지역 고급펜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
매매 오피스텔  매매가 42억 조선대학교 공대입구 / 10층 / 신축 / 대지 183평, 건물 600평	매매 상가건물  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계곡 산장 매매가 3억 5천만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